

## 구원 없는 재난 서사와 혐오의 정서

—김애란의 「물속 폴리아트」와 손흥규의 『서울』을 대상으로

김 영 삼\*

### 요약

본 논문은 재난이 생산하는 혐오의 정서에 주목하면서 구원이 생략된 목시록의 서사를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 인류는 일상화된 재난을 겪고 있다. 재난은 지속적으로 반복되지만 구원은 지속적으로 유예된다. 김애란의 「물속 폴리아트」와 손흥규의 『서울』은 구원 없는 재난 서사의 양식을 통해 혐오의 정동을 표현하고 있다. 두 소설에서 재난은 생존 공간을 파괴하는 파국으로 등장한다. 온 세계가 물에 잠기거나, 근대적 공간으로서의 서울 자체가 폐허가 되어 버린다. 그러나 구원의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수동성을 내면화한 부모 세대는 죽음의 순간까지 무책임하다. '세계의 끝'에서 소년들은 살아남지만 구원의 계시와 같은 희망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속 폴리아트」의 소년은 아버지가 죽었던 타워크레인 위에 홀로 남겨졌고, 『서울』의 소년은 동생을 구하기 위해 다시 서울로 돌아오지만 세계는 좀처럼 반성을 모른 채 복습될 뿐이다. 이 구원 없는 재난 서사와 미래의 시간성이 거세된 목시록은 사회의 모든 시스템과 공동체의 존재양식을 심판하는 재난의 플롯이다.

재난 서사들은 모든 관계가 파멸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정동의 파동을 예민하게 포착하고 언어화하고 있다. 특히 이 글은 재난이 생산하는 혐오의 정서에 주목한다. 재난의 파국적 이미지는 오브젝트(object)로 표현된다. 부패한 시체와 악취와 무너진 건물 등의 이미지들은 죽음을 연상시키면서 혐오를 생산한다. 특히 빈번하게 등장하는 구토 행위는 생존 본능이 추동하는 육체의 요구와 정신적 파멸에 대한 자기혐오의 환멸적 표현이다. 또한 인물들의 자기파괴는 세계의 파국을 불러온 지난 시간에 대한 성찰적 자기혐오의 표현이다. 또한 재난은 강력한 타자혐오

\* 전남대, 조선대 국문과 강사

의 정동을 촉발한다. 특히 『서울』에서 헬멧을 쓴 동생에 대한 증오와 차별은 타자 혐오를 증폭하는 기제였다. 자본주의는 스스로를 구성하는 대상을 물질에서 비물질로 자본에서 비자본으로 변화시키면서 생존한다. 혐오는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관습적인 재등장일 뿐이다. 또한 혐오는 대상이 되는 존재들의 구체적인 얼굴들을 지워버림으로써 새로운 공동체의 존재방식에 대한 상상력을 막아낸다. 그러나 『서울』의 서사는 새로운 가족의 탄생과 동생 구출하기의 양식으로 전환되면서 연대와 사랑의 정동을 남기고 있다. 재난은 혐오의 정동을 확산하지만, 소년의 희생은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을 포스트-서울에 남긴다. 재난을 서사화하는 문학은 재난의 불평등을 진단하는 사회학의 대리보충을 넘어 정동의 파동에 주목하면서 자기의 위치를 탐색하고 있다.

주제어: 재난 서사, 목시록, 혐오, 차별, 세계의 끝, 재난 불평등, 『물속 골리앗』, 『서울』

## 목차

1. 들어가며 : 디스토피아적 재난 서사
2. 구원 없는 목시록, 복습되는 플롯
3. 재난 불평등과 엘리트 권력의 공생
4. 파국의 아브제트와 자기혐오
5. 타자혐오와 새로운 공동체
6. 나오며 ; 경험을 상실한 문학의 과제

## 1. 들어가며 ; 디스토피아적 재난 서사

인류는 ‘재난 공동체’를 살고 있다. 쓰나미, 지진, 기후 이변과 같은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인류의 시공간을 침범하고 있으며, SARS, MERS, 코로나-19 등의 변종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 그리고 세월호 침몰과 같은 사회적 인재가 불안과 공포의 서사들을 증폭시키고 있다. 일상적 재난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국가의 역할과 정치의 의미를 되묻고 있으며 공포와 불

안 또는 혐오와 차별 등의 정동의 파동과 함께 그 폭력성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재난은 ‘예외상태’의 가시적 출현이면서 불안과 공포 그리고 혐오와 차별의 정동을 생산하는 사건이다.

공포에 대한 공포증, 즉 ‘포보포비아(phobophobia)’<sup>1)</sup>가 만연하다. 재난은 이제 “미래의 어느 순간 닥칠 한 차례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고 오랜 시간 지속될 시간”으로 다가온 “실재의 표징”<sup>2)</sup>이 되어 버렸다. 재난 서사의 상상력은 이 강력한 불안과 공포를 동력으로 우울, 슬픔, 좌절, 공감, 혐오, 차별, 분노, 갈등, 연민, 환대 등 다양한 정동의 정치를 드러내고 있다. 세월호와 같은 재난은 많은 국민들을 애도의 공동체로 묶이게 하면서 슬픔과 ‘정치적 우울’과 미안함의 정동을 증폭시켰다. 반면 ‘먹고 사는 일’의 절대불가침적 영역이 강조하는 경제논리는 혐오와 차별의 정동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애도의 공동체와 혐오의 공동체가 서로 부딪쳤던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는 정동의 정치가 현실의 정치를 압도하는 현장을 목도했다.

이렇듯 재난은 정동의 마주침이라는 사건으로 경험되면서 인간의 실존적 존재의 가능성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조건은 무엇인가와 같은 근본적 질문과 마주했다. 이때 한국 문학은 이러한 질문들을 한국 사회의 상황 속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재난 서사를 구성해 왔고 그 안에는 수많은 정동들의 잠재성과 마주침과 운동성이 도사리고 있다. 본 논문은 이 정동의 마주침에 주목하면서, ‘재난-재난서사-정동의 마주침-공동체의 윤리-정동정치의 가능성’이라는 경로를 통해 2000년대 이후 생산된 재난 서사들을 분석하려는 기획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시작으로 이 글에서는 김애란의 『물속 골리앗』과 손흥규의 장편 『서울』을 대상으로 재난 서사와 정동 정치의 관계 탐색을 시작하려 한다.

2000년대 이후 영화, 드라마, 웹툰, 소설 등의 서사에서 대재앙과 인공

1) 지그문트 바우만, 조은평·강지은 옮김,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 동녘, 2010, 250면.

2) 김홍중, 『사회학적 파상력』, 문학동네, 2016, 46면.

적 재난이 불러오는 종말론적 상상력이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디스토피아적 서사들은 이른바 ‘세계의 끝’에 대한 두려움의 징후들로 읽힌다. 복도훈은 재난 서사들을 “현대 한국소설의 재난의 상상력이 위치해 있는 상상적이고도 현실적인 이데올로기적 좌표의 하나<sup>3)</sup>”라고 진단하면서, 자본주의적 논리가 파국을 맞이한 공황 상태를 적극적으로 상상하는 서사적 대응으로 재난 서사를 정의한다. 묵시록적 감성은 인류사에서 반복된 재난의 파국을 극복하면서 형성된 인류 문명의 승리의 서사로 볼 수 있다. 이는 기독교적 종교관과 공명하면서 파멸과 복원, 종말과 부활, 징벌과 구원의 묵시록적 서사는 원형적 서사관을 정립해왔다는 점에서 세계인식의 근본적인 틀과 같다. 그런 의미에서 “재난의 서사는 재난을 상상하지 않고서는 불안을 견딜 수 없는 강박증 시대의 마스터플롯<sup>4)</sup>”이라는 진단은 여전히 타월하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2000년대 이후 한국 소설의 재난 서사들에 구원 없는 디스토피아적 전망이 많다는 사실이다. 각종 재난의 파국적 국면에서도 구원의 비전을 제시했던 과거의 묵시록 서사와 달리 최근의 서사들은 삶과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지금-여기의 시대적 상황과 결부되면서 ‘파국의 현재성’을 서술하고 있다. “구원 없는 세계의 끝에 대한 상상”이나 “미래에 대한 전망 부재에서 현실에 갇혀 고립된 개인”들이 최근 한국문학의 우세종이라는 진단<sup>5)</sup>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니 불가역적 재난이라는 아주 오래된 파멸의 상상력은 생존 자체가 실존의 문제가 되어버린 현실의 불안을 표현해 낼 서사 양식으로서의 개연성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3) 복도훈, 『세계의 끝: 최근 한국소설에 나타난 재난의 상상력과 이데올로기적 증상』, 『인문학연구』 42권,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1, 198-199면.

4) 강유정, 『재난서사의 마스터플롯』, 『세계의 문학』 151, 2014년 봄호, 62-63면.

5) 소영현, 『민주화의 역설과 한국소설의 종말론적 상상력 재고』, 『한국문예창작』, 제12권 1호, 한국문예창작회, 2013, 245면.

재난 서사들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sup>6)</sup>은 대체로 재난을 다루는 문학적 양식에 대한 고찰과 ‘재난 불평등’의 관점에서 주제를 탐색하고 있다. 작품들이 다루고 있는 재난의 원인을 사회적 불평등과 구조적 부정의에서 찾으면서, 재난의 파국이 가난한 자들과 같이 이름 없는 자들에게 더 가혹할 수 있다는 진단이었다. ‘재난 불평등’이라는 구조적 진단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이는 사회학적 진단에 대한 문학의 대리보충에 해당하며, 재난이 개인들의 삶에 남기는 정동의 마주침을 조명하기에는 방향성

6) 재난 서사에 대한 본격적인 보고는 그리 많지 않다. 대체로 2000년대 이후 사회적 재난과 자연재해를 다루고 있으며, 대상 작품들도 비슷한 시기에 생산된 것들이 많다.

2000년대 이후 한국문학의 재난 서사를 연구한 논문으로, 김은하, 『후기 근대의 공포와 재앙의 상상력- 편혜영의 『재와 빨강』』, 『Comparative Korean Studies』 Vol.21 No.1, / 김지혜, 『재난 서사에 담긴 종교적 상징과 파국의 의미 - 김애란, 윤고은, 정용준의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70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7. / 김형중, 『대한민국 목시록』, 『현대문학』, 2010.7. / 복도훈, 『세계의 끝: 최근 한국소설에 나타난 재난의 상상력과 이데올로기적 증상』, 『인문학연구』 42권,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1. / 소영현, 『민주화의 역설과 한국소설의 종말론적 상상력 재고』, 『한국문예창작』 제12권 1호, 2013. / 오혜진, 『출구 없는 재난의 편제, 공포와 불안의 서사-정유정, 편혜영, 윤고은 소설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제48집, 우리문학회, 2015. / 윤정화, 『김중혁 소설에 나타난 재난 서사의 변주』, 『대중서사연구』 제24권 제1호, 대중서사학회, 2018. / 이광호, 『시체들의 피담, 하드코어 원더랜드-편혜영 소설과 모더니티의 엮기전』, 『아오이가든』, 문학과지성사, 2005. / 전성욱, 『세계의 끝에 관한 인식과 그 서사화의 유형학 - 2000년대 이후 한국소설의 재난·종말 서사』, 『동남어문논집』 38집, 동남어문학회, 2014. / 정여울, 『구원 없는 세계에서 살아남기 - 2000년대 한국문학에 나타난 ‘재난과 파국’의 상상력』, 『문학과 사회』 2010년 겨울호 / 홍덕선, 『파국의 상상력: 포스트목시록 문학과 재난문학』, 『인문과학』 제57집, 성균관대 인문학연구원, 2015. / 조윤정, 『백화점 붐피의 기억과 재난 자본주의 - 삼품 찻사의 서사화와 쓰기노동의 윤리』, 『한국문학연구』 61, 2019.

재난서사의 성격과 정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보고로서는, 신진숙, 『재난의 상상력과 정동의 미적 정치』, 『인문논총』 제75권 제2호, 2018. / 한순미, 『세계를 바라보는 다초점 렌즈로서의 재난(인)문학』, 『동서비교문학저널』 제50호, 2019. / 문강형준, 『왜 ‘재난인가-재난에 대한 이론적 검토』, 『문화과학』 통권 72호, 2012. / 문강형준, 『재난 시대의 정동-애도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여성문학연구』 35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재난의 사회학적 의미에 대한 분석으로는 허라금, 『위험 시대 ‘재난’과 정치적 책임』, 『철학연구』 108, 철학연구회, 2015. / 김성일, 『고위험사회가 초래한 한국형 재난의 발생과 기원』, 『문화과학』 통권 72호, 2012.

이 달라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재난의 사회적 불평등의 측면이 국가의 역할과 공동체의 존재방식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촉발한다는 점과, 재난이 생산하는 힘오와 차별의 정서를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차별지점을 형성하려 한다. 사회학을 넘어선 문학의 역할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2. 구원 없는 목시록, 복습되는 플롯

### 1) 파국의 십자가

김애란의 『물속 골리앗』<sup>7)</sup>은 온 세계가 물에 잠겨버리는 불가역적 재난 상황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이 양산하는 생존의 불안을 한 가족의 서사로 담아내고 있다. 소설의 인물들은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생존에 대한 근본적 불안에 내몰려 있다. 삶의 파국적 상황은 종말에 대한 상상을 유인하고 구원에 대한 기대는 최종적 심판의 가능성을 바랬을 터, 대홍수라는 오래된 목시록 서사에 대한 상상력은 충분히 개연적이다. ‘세계의 끝’이라는 파멸의 상상력은 ‘삶의 끝’을 상상하지 않고서는 생존의 불안을 표현할 수 없는 이 시대의 비극적 서사 양식을 요구하니까 말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물속 골리앗』은 신의 구원을 계시하는 목시록에 대한 디스토피아적 패러디이다. 이 소설에서 구원의 희망이 거세되어 있기 때문이며, 구원의 과정이 생략된 채로 몇 겹의 재난이 한 가족의 삶에 연쇄적으로 닥치기 때문이다.

---

7) 김애란, 『물속 골리앗』, 『비행운』, 문학과지성사, 2012. 김애란의 작품은 〈자음과모음〉 2010년 여름호에 발표되었고, 『2011년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문학동네, 2011)에도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작가의 작품집으로 묶인 문학과지성사판을 정본으로 삼는다 이후 작품 인용은 작품명과 면수만 표기.

마을은 텅 비어 있었다. 동네 전체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갔기 때문이다. …… 여염집 대문엔 다윗의 별처럼 하나둘 X자가 늘어갔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 속 이야기와 달리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표식이 아니었다. 우리 모두 그걸 알고 있었다. (『물속 폴리아트』, 88면)

소년의 가족은 20년 전 이곳 “강남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름의 상징성과 달리 이곳은 철거명령이 내려진 도시 변두리의 재건축 단지다. 험값의 보상금으로 이 가족이 갈 수 있는 곳은 없었다. “붉은색 페인트로 여기저기 커다란 X자가 칠해진 뒤, 모두 사라졌기 때문”(89면)에 폐허에 남은 가족은 이들 뿐이다. 노아의 방주와 달리 이들은 강제적으로 이곳에 남겨졌다. 선택된 것이 아니라 선택에서 제외되었다. 다윗의 별처럼 새겨진 “X자”는 구원의 징표가 아니라 배제와 추방의 징표로 기능한다.

파국과 정화로 이어지는 목시록의 변증법적 반복은 여기에서 절망의 반복으로만 재상영된다. 전자는 세계를 리셋하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지만, 후자의 경우 새로운 시작은 불가능하다. 전자의 세계들은 각각 독립 변수로 존재하지만, 후자의 세계는 부모 세대의 실패가 자식 세대에게 영향을 주는 매개 변수로 작동한다. 리셋이 없는 실패한 삶들의 시작선은 더 뒤로 밀린다. 20년 간 부채를 갚는 동안 도시의 집값은 더 올랐고, 현상유지는커녕 가까스로 지옥으로의 추락을 막을 뿐이었다. “철거명령”은 절망과 희망이 반복되는 자본주의적 플롯의 연결고리마저 끊어버렸다.

“원시적인 어둠”(87면)이 지배하는 이곳의 생존자는 무기력한 어머니와 무능력한 소년뿐이다. 모녀의 생존은 노아의 방주와 달리 새로운 생식이 불가능한 조합이다. 정화는 되었을지 몰라도 새로운 세계를 위한 창조는 불가능하다. 더구나 예고된 어머니의 죽음은 최후의 인류가 느낄 공포스러운 외로움을 소년에게 남겼다. 소년은 집안의 나무 문짝을 이용해 뗏목

을 만들어 탈출을 시도한다. 세계는 모두 물로 뒤덮였고, 생존자는 보이지 않는다. 어머니의 시체를 태운 뗏목을 놓쳐버리면서 이제 소년은 철저히 혼자가 된다.

이 철저한 고립과 외로움, 구원에 대한 기대가 거세된 상태에서의 생존이 바로 이 소설이 드러내는 재난의 본질적 의미이다. 부모의 죽음에 대한 애도도 마무리되지 않은 채 소년에게는 생존의 두려움과 최후의 인류 일지도 모른다는 극단의 외로움이 남겨졌다. ‘세계의 끝’에 소년은 홀로 남겨졌다. ‘물의 심판’이 던진 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말이다.

자연은 지척에서 흐르고, 꺾이고, 번지고, 넘치며 짐승처럼 울어댔다. 단순하고 압도적인 소리였다. 자연은 망설임이 없었다. 자연의 회의(懷疑)가 없고, 자연은 반성이 없었다. 마치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거대한 금치산자 같았다. (『물속 폴리아트』, 94-95면)

늑대한 방바닥에 누워 지구의 살갓 위로 번져나가는 무수한 동심원의 무늬를 그려봤다. 동그라미 속의 동그라미 속의 동그라미들 …(중략)… 오래전에도, 그보다 한참 전에도, 지금과 똑같은 모양으로 떨어졌을 동그라미들. 우리의 수동성을 허락하고, 우리의 피동성을 명령하며, 우리의 주어 위에 아름다운 파문을 일으키는 동그라미들. 몹시 시끄러운 동그라미들. …(중략)… 하지만 나는 나약한 사춘기 소년에 불과했고, 당장 뭘 이해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물속 폴리아트』, 95면)

첫 번째 인용문에서 보이는 압도적인 자연의 폭력성은 기존의 세계를 끝장내고 새로운 법률과 인류를 창조하기 위한 ‘신적 폭력’으로 보인다. ‘부도덕-처벌-정화-구원-신세계’로 이어지는 오래된 묵시록적 플롯은 ‘법-정립적 폭력’이라는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자연



은 어디까지나 우주의 우연한 결과다. 파멸의 의지를 가진 어떤 존재가 만든 필연의 결과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자연에게 ‘회의’와 ‘반성’을 요구하는 것은 기이하다. 그럼에도 작가가 이 문장을 썼다면 거기에는 어떤 의도가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마치 사실은 ‘회의’와 ‘반성’이 필요하며, 책임을 져야 함에도 그렇지 않는 어떤 존재를 상정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두 번째 인용문은 이런 분석에 증거가 되어준다. “우리의 수동성을 허락하고, 우리의 피동성을 명령”한 주체로서의 “동그라미”는 조용하게 하지만 잔인하게 이 세계를 물의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는 어떤 필연적 존재를 지시하는 듯하다. 가난한 자들을 삶의 경계 밖으로 밀어버리고 수동성과 피동성을 삶의 유일한 방식으로 정식화하면서, 그들을 쫓아 낸 폐허 위에 다시 자신들만의 왕국을 재건설하려는 이 사회의 거대한 자본주의적 질서가 바로 저 “자연”이라는 알레고리의 정체인지도 모른다. 부끄러움과 수치와 반성이 없이 세계를 획일화해 버리는 존재인 ‘사회’는 그 자체가 전부여서 바깥에 존재하지 않으니 반성을 모르는 “금치산자”가 맞다. 또한 ‘사회’가 스스로 인간을 탄생시키지 않았으니, 당연히 책임과 구원으로 부터 자유롭다. 때문에 소년이 “그만하라고, 씨발!”(108면)이라고 말할 때, 이 외침은 존재하지 않는 신성에 대한 모독이 아니라 사회에 억눌린 자의 비명으로 읽힌다. 또 소년이 겨우 몸을 의지하고 있는 타워크레인이 “방주가 아니라 형틀”(118면)이라는 깨달음도 구원 대신 고난이 계속될 것이라는 서글픈 예고로 읽힌다.

가도 가도 망망대해였다. 대신 자주 출몰하는 건 대형 크레인이었다. 물에 잠겨 크기를 가늠하기 어려웠지만 가로로 뻗은 기다란 철골의 길이로 보아 대부분 콜리야크레인이 틀림없었다. 그것은 물속 곳곳에 들쭉날쭉한 높이로 박혀 있었다. 마치 지구상에 살아남은 유일한 생물처럼 가지를 뻗고 물안개 사이로 음산하게 서 있었다. 그것들은 대부분 한쪽 팔

이 길었다. 그래서 마치 한쪽 편만 드는 십자가처럼 보였다. 먼 데서도 그보다 더 아득한 수평선 너머로도 타워크레인의 앙상한 실루엣이 드러났다. 세계는 거대한 수중 무덤 같았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타워크레인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잦은 출현이었다. (『물속 폴리아트』, 112면)

물로 덮인 세계에 “유일한 생물처럼” 살아남은 존재가 폴리아트크레인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세계의 종말이 아니라, 자본주의 세계의 최적자만이 생존했음을 의미한다. 즉 “물속 폴리아트”은 신의 징벌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다른 종들과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최후의 존재다. 타워크레인의 생존은 인간 종의 절멸을 의미하면서, 근대 자본주의 질서에서 생존한 최적자라는 점에서 그 체제가 여전히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효율성이 극대화된 기계에 의한 지구 종말이라는 파국의 이미지는 익숙하면서도 낯설다. 기계가 상징하는 효율성의 승리라는 점에서 언캐니언하고, 세계가 다시 정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그로테스크하다.

“지구상에 살아남은 유일한 생물처럼 가지를 뺀고 물안개 사이로 음산하게 서”(112면) 있는 타워크레인의 형상이 구원이나 희망의 존재처럼 보이지 않는 이유는 “한쪽 편만 드는 십자가”처럼 심판의 저울이 기울어 있기 때문이다. 한쪽으로 기운 십자가, 공평하지 않은 심판자, 구원의 십자가의 자리에 들어선 파국의 십자가, 철근으로 만들어진 차가운 생물의 어깨에 올라탄 소년의 미래는 아무래도 위태로워 보인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구원의 평등성이 여기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를 띤다. 폴리아트 크레인 위에 남겨진 소년은 아무래도 아버지의 삶을 복습할 것만 같다.

## 2) 파국의 현재성

손흥규의 장편소설 『서울』<sup>8)</sup>은 가난과 재난이 중첩된 폐허의 공간에 남

겨진 또다른 가족을 보여준다. 손흥규의 소설에서 서울은 역사가 정지해 버린 폐허의 공간으로 ‘담담하게’ 서술된다. ‘담담하다’는 서술의 정조는 파괴적 재난을 흥밋거리의 서사로 소비하지 않는 작가의 태도이며, 허무만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희망이라는 언어를 지워버린 소년의 황폐해진 내면세계의 음률이다. 그러니 폐허에서 느끼는 저 ‘장엄함’은 칸트가 말한 ‘숭고함’의 디스토피아적 표현에 가깝다. 인간의 이성적 능력과 상상력을 압도하는 어떤 거대한 존재 앞에서 느끼는 존재의 무기력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서울은 불가역적으로 파괴되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다만 지난겨울 “서울을 엄습한 안개는 단 한 번의 습격으로 모든 걸 점령”(30면) 했다는 문장 정도로 파국의 정체가 은유될 뿐이다.

중요한 것은 폐허 이후 역사의 시간성 자체가 소멸되어 버렸다는 절망이다. “과거와 미래의 개념이 무의미해졌다”라는 진술은 오로지 파국의 현재성만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징표다. 절망이라는 감정마저 담담하게 지워져버린 처절한 니힐리즘의 세계에서 시간은 모든 결정 불가능의 공간으로 흡수되어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 세계에는 새로운 생을 생산할 어떤 가능성도 없는 듯하다.

“아기가 울어” / “고양이야” / “아기가 맞아” / “더 이상 아기는 없어” (『서울』, 11면)

“형…… 신이 있을까?” / “없어.” / “그래도 있다면?” / “만약에 말이야. 정말로 신이 있다면” / “없어.” / “혹시라도 있다면 한번쯤 보고 싶어.” / “넌 볼 수 없을 거야. 내가 죽어버릴 테니까.” (『서울』, 16면)

아침 무렵 개는 첫 번째 강아지를 출산했다. 정오까지 세 마리를 낳았으나 모두 사산이었다. 네 번째 강아지는 숨이 붙은 채 태어났으나 해가

8) 손흥규, 『서울』, 창작과비평, 2014. 이후 인용 시 본문에 작품명과 면수만 표기함.

질 무렵에는 딱딱하게 굳었다. (『서울』, 33면)

소설에서 아기들은 모두 “낮의 사람들”로 불리는 낮선 종족으로 태어난다. 태어나는 아기들은 인간이지만 곧 인간이 아니게 될 것이므로 죽는다. 재난 서사의 보편적 활용방식과 달리 아기는 미래세대의 희망을 표상하지 못한다. 아기는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며 악의 탄생이다. 이러한 알레고리는 미래라는 시간성의 파멸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과거가 환원주의적으로 상상되지도 않는다. 서울은 폐허 이전부터 이미 “악몽”이었으니 지나온 어느 순간에도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았다.

무능력했던 아버지와 무기력했던 어머니는 혹독한 이 세계를 견뎌야 하는 과제를 소년과 동생에게 남기고 죽은 지 오래다. 불행은 결코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는 모양이다. 그것이 혈육일지라도 말이다. 지나온 시간을 상상할 때마다 소년은 강력한 부친 살해의 욕망으로 가득 찰 뿐이다. 어느 날 술 냄새를 풍기던 아버지는 소년과 동생을 옥상으로 데리고 갔다. 지상으로 떨어지기 직전 돈을 빌려 간 고모의 전화가 없었다면 소년과 동생은 아마 이 폐허를 보지 않아도 될 뻔했다. 살아남아 세계의 종말을 보고 있으니 그때 죽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겠다. 이후 소년은 아버지를 해치워버리겠다고 생각했으니 과거와 미래는 이미 그때부터 지워진 셈이다. 이미 그때부터 신은 없었으니, 신성모독을 넘어선 신성 살해는 부친 살해의 확장판이다. 오직 파국의 현재만이 남았다. 소년의 분노에는 세계에 대한 혐오가 가득하다. 구원이 거세된 상태로 무수하게 재생산되는 이 파국의 현재성이 『서울』의 디스토피아적 시간성이다.

반성 없는 세계의 복습은 손흥규의 소설에서도 마찬가지다. 김애란의 서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비극의 상연 범위가 가족에서 세계 전체로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사흘 동안 대낮의 풍경을 지켜본 소년은 저들이 마치 출근이라도 하듯 이쪽에서 저쪽으로 혹은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넜다가 퇴근이라도 하듯 돌아가고 돌아온다는 걸 알게 되었다. 저들은 밤을 두려워하면서도 즐기는 것 같았다. 그때 저들이 외치는 소리는 소풍을 즐기고 귀가하는 가족들이 보일 법한 지친 웃음을 닮았다. 소년이 헤아릴 수 없는 질서가 저들 속에 있었다. 소년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이 있었고 스스로의 방식을 따라 일상을 영위하고 의무를 수행하면서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저들만의 감정이 있었다. 인간과 저들은 완벽하게 대칭이면서 완벽하게 다른 존재인 것 같았다. (『서울』, 223-224면)

인용한 장면들은 폐허가 되기 이전의 서울이 아니다. 세계의 절멸 이후 “낮의 사람들”이 지배하는 포스트-서울의 풍경이다. 새로운 종족들은 이전 세계와 마찬가지로 출근을 하고 정보를 처리하며 퇴근을 하며 휴일에는 소풍을 즐긴다. 좀비와도 같은 존재들이 지배하는 세계라기보다는 이전 인간들이 살아왔던 서울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밤의 인간들’과 ‘낮의 사람들’은 하루의 시간을 분할하며 공존한다. 서로를 경계하지만 닮아있다. 김애란의 소설에서 세계의 절멸 이후 살아남은 ‘폴리앳크레인’의 존재가 자본주의적 질서가 반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묘사하는 것처럼, 손흥규의 소설에서도 ‘낮의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계가 이전과 다르지 않다는 점은 현세계의 비극이 반복될 것이라는 징조다. 좀처럼 세계는 반성을 모른다.

두 작품 모두에서 구원은 없다. 소년들은 세계의 끝에 선택된 자들이 아니라 모두 떠나고 버려진 존재들이다. 두 작품의 재난은 모두 신의 징벌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가해지는 지속적 차별이다. “사람들이 우리를 잊은 게 아닐까?”(『물속 폴리앳』, 108면)라는 소년의 뒤늦은 짐작은 사실 오답이다. 사람들은 이들을 버렸다. 두 작품의 소년들은 모두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해 위태로운 여정을 떠난다. 그러나 이들은 제자리에서 벗어

나지 못했다. 김애란의 소년은 아버지가 실족사한 ‘골리앗 크레인’ 위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손흥규의 소년은 동생을 찾기 위해 다시 서울로 돌아온다. 이들의 귀환은 이들을 버리고 죽어버린 부모 세대의 세계가 다시 재상영될 것이라는 서글픈 암시다. 아버지의 부재와 소년들의 고통은 위험사회에서 홀로 생존해야만 하는 위태로운 개인들의 삶을 상상하게 하면서 실재하는 불안과 고통을 직접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두 소설에서 인물들에게 고유한 이름이 없다. 아버지, 어머니, 노인, 여자, 소년, 소녀, 동생 등의 대명사로만 지칭된다. 이는 그들의 불안과 고통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시공간에서 자기 존재의 고유성을 증거하는 이름의 호명은 무의미하다. 또한 삶보다 죽음이 더 가까운 세계에서 ‘이미 죽은 사람의 이름은 금방 잊히기 마련이다. 그것이 ‘곧 죽을 사람’이라 해도 사정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시간은 지워졌다. 파국적 현재만이 반복되는 복습의 시간만이 남았다.

### 3. 재난 불평등과 엘리트 권력의 공생

공정한 심판이 없는 묵시록은 경제적 불평등이 지배하는 세계에 대한 비극적 양식이며, 구원 없는 재난은 반복되는 비극에 대한 디스토피아적 패러디라는 서사적 양식으로 드러나고 있다. 욕망으로 더럽혀진 인류에 대한 심판이라는 묵시록적 플롯은 특히 가난으로 오염된 존재들에 대한 살처분 또는 배제를 통한 정화라는 인종주의적이고 우생학적 절멸의 플롯으로 변주되어 버렸다.

근대화에 대한 불안은 신자유주의의 확장을 거치면서 체제의 경계 내부로 진입하지 못한 국민들을 생존의 주변부로 내몰면서 강화되고 있다. 사회라는 거대한 보호막의 철거가 세계 시장의 참가자격증이 되면서부터 모든 인민(people)들은 개별적 경쟁체제로 내던져졌고, 생존 자체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집단 감성이자 무의식”<sup>9)</sup>으로 확립되어버렸다. 즉 소설의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살아남은 가족들의 ‘불안’은 이 집단적 무의식이 투사된 “파국의 알레고리”<sup>10)</sup>에 다름 아니다.

무엇보다 이 불안의 의식은 가난이라는 비극으로부터 가족을 구워줄 존재인 아버지의 부재로 더욱 강화된다. 가족 공동체는 중심축을 잃은 채 무너졌고, 고난 극복의 과제는 이제 아버지의 삶에서 이들의 삶으로 이식된다. 근대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 단자로서 가족 공동체는 파괴되었고, 이어지는 재난의 연속은 구원-없음의 파괴적 미래를 예고한다. 구원이 생략된 파국은 가족해체의 플롯으로 양식화되었다. 손홍규의 소설은 이 지점에서 다시 한 번 중첩된다.

어느 날 눈을 떴을 때 소년과 동생은 목을 맨 어머니를 보았다. 천장에 매달린 어머니를 끌어내릴 때 온몸에 생생하게 전해지던 딱딱하면서도 피로한 살갓의 감촉. 소년은 잠든 어미 개의 품에 안긴 강아지들을 손가락으로 만져보았다. 어머니의 손바닥에 박인 굳은살을 만졌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었다. 소년은 손가락을 통해 배신감이라는 모호한 감정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서울』, 34면)

소년은 아버지의 몸에서 풍기는 열은 술 냄새를 맡았다. … 아버지를 따라 소년과 동생은 아파트 옥상에 올랐다. 고원처럼 바람이 불었다. 바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소년을 스쳐 지나갔다. 소년은 책가방을 유서처럼 내려놓았다. 자, 이제 우리 좀 더 좋은 세상을 보러 가는 거다. 아버지의 갈라진 음성을 바람이 흩뜨렸다. 소년은 그보다 더 비열한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 것만 같았다. … 그날이 떠오를 때마다 그 의미를 곱씹다 어느 순간 아버지가 지워져 있었을 뿐이다. 오랫동안 소년과 동생은

9) 김성일, 『고위험 사회가 초래한 한국형 재난의 발생과 기원』, 『문화과학』 72호, 문화과학사, 2012, 98면.

10) 정여울, 앞의 책, 334면.

그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 어른이 되면 아빠를 내 손으로 죽이겠다는 결심을 한 것도 그날이었던 것 같아. (『서울』, 43-45면)

인용된 부분들에서 무엇보다 배신감의 정서가 지배적이다. 『서울』의 서사에서 부모 세대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했고 윤리적으로 무책임했다. 아버지는 세계의 절멸이 오기 전에도 이미 부모로서의 능력을 상실했다. 돈을 빌려 간 고모가 돈을 갚겠다는 전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버지는 두 아들을 옥상에서 던지지는 못했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그 순간 소년에게서 아버지는 “지워진”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점이다.

부친 살해의 욕망은 선형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 결핍에서 탄생했다. 이는 어떤 구원도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 대한 부정으로 확장되는데, 작품 곳곳에서 드러나는 어른 남성들에 대한 소년의 적대적인 태도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부친 살해에서 신의 부정으로 그리고 세계에 대한 환멸로 이어지는 혐오의 정서는 소년과 작품 전체의 정서를 지배하고 있다.

이는 『서울』의 서사에 어둠의 절정을 희망의 결말로 이끌어 줄 남성적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관련된다. 광폭한 자연의 공격으로부터 가족과 공동체를 지켜내면서 재난 서사를 승리로 이끄는 남성 영웅은 없다. 야만을 문명화시키는 거친 남성성, 강력한 지도자, 첨단 기술이 바탕이 된 군사력, 강력한 전투 능력을 소유한 전통적 강자들은 없다는 점은 국가 존재의 무능과 이들에 대한 거부감으로 읽히기에 충분하다. 『서울』에서는 간간히 헬리콥터는 ‘낮의 사람들’의 공격에 허무하게 추락하고, 군대는 희미한 총소리로만 묘사될 뿐이다. 『물속 골리앗』에서 국가 또는 정부는 철거명령을 집행하는 야멸찬 행정 권력의 형식으로만 등장할 뿐 어머니와 소년을 구하러 오지 않는다. 재난 서사의 전통적 클리셰라면 이들 남성 영웅들은 비극적 상황을 희망으로 전도시킬 능력을 전유하고 있겠으나 이 소설은 처음부터 재난과 극복, 파괴와 구원 등의 이분법적 대립 관계를 통해 국가의 필요성을 호명하고 소환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어 보



인다. 이유는 간명하다. 그들이 바로 파멸을 불러온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동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그럭저럭 즐기는 편인 듯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는 아버지처럼 자식들을 아파트 옥상에서 던져버리려 했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소년이 보기에는 누구도 그 일에 성공하지는 못할 듯했다. 그 일에 성공한 건 바로 이 세계였다. 아버지를 비롯해 아버지의 동료들은 어떤 면에서 보자면 모두 타고난 좀비였다. 세상사에 무관심했으나 무관할 수는 없었으므로 세상이 시키는 일만 의무를 수행하듯 꾸역꾸역 치러내면서 아무런 열망 없이 - 그러나 이 세상이 자신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좋겠다는 간절한 열망만은 잃지 않은 채 살았다. 그렇게 사는 것도 산다고 말할 수 있다면 말이다. (『서울』, 231-232면)

김애란의 소설에서 아버지는 애도의 대상이지만 손홍규의 소설에서 아버지는 세계 파멸의 책임 주체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동료들”은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에 포획된 이전 남성 세대의 무비판성과 무책임성을 표상한다. 그들은 “주어진 삶”을 그저 즐기면서 “세상사에 무관심”하면서 의무만을 수행하던 ‘철학적 좀비들이었다. 사유가 정지된 수동적 주체들의 공간, 그러한 사회구조의 상징적 공간이었던 서울이라는 거대도시의 파국과 몰락은 ‘남성-영웅-국가’로 이어지는 근대 권력구조를 일순간 무력화시키고 있다. 남성 영웅의 부재가 구원 주체로서 신적 존재의 부재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김애란과 손홍규의 두 소설이 공명하고 있다. 파멸의 주체를 신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찾고 있으니 신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두 소설은 절대적 존재에 의한 구원을 살해한 채로 시작했다.

재난 이후 복구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웃과 공동체의 가치에 주목한 레

베카 솔닛은 권력과 정부를 상징하는 남성 영웅들이 재난 상황에서 보여 준 혼란을 ‘엘리트 패닉’<sup>11)</sup>이라는 용어로 규정한 바 있다. 특히 9.11 사태에 주목하는데, 소방대원들의 영웅적 활약상을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정부의 당사자들은 그 뒤로 스스로를 은폐시킴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강하게 비판한다. 국가 권력과 강한 남성성의 표상으로서 ‘엘리트’들은 ‘군인’과 ‘총기’로 무장한 채 추가적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하드웨어적 파워의 증강만을 목표로 설정한다. 소비주의와 애국주의로 무장한 남성적 엘리트 권력은 불안과 복종을 증강시키면서 온갖 폭력과 혐오와 차별을 재생산하기만 할 뿐이다.<sup>12)</sup>

이 지점에서 ‘재난 불평등’이라는 관점은 재고될 여지가 있다. 두 소설에서 아버지들의 삶이 가난했고, 이들이 처한 경제적 불평등이 살아남은 소년들의 삶을 더 비참하게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가난은 재난에 노출될 위험성을 높인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재난 불평등’이라는 개념은 “가난한 나라에 줄 수 있는 교훈은 성장이야말로 최고의 재난 경감 대책이라는 것”<sup>13)</sup>이라는 빈약한 결론만을 줄 뿐이다.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 재난 상태를 목도하고 있는 현재, 선진국가라고 알려진 서구 사회의 거리에 등장한 군대는 파시즘적 통제와 감시가 그

11) 재난에 대처하는 정부와 군대 등 엘리트 권력 집단의 무능과 통제 중심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는, 레베카 솔닛, 정혜영 옮김, 『이 폐허를 응시하라』, 그린비, 2012, 194-202면.

12) 레베카 솔닛, 앞의 책, 331-335면. 2015년 말 뉴올리언스에 닥친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피해 슈피돔에 모인 슬픈 얼굴들은 대부분 흑인들이었다. 주정부는 군대를 투입해서 흑시라도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폭력과 유혈과 약탈에 대비했다. 이러한 일련의 대처들은 재난 이후 권력 작동의 목적이 생존보다 통제에 방점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어떤 부정의는 재난 자체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 사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문제가 재생성되는 현상인 경우가 있다. 재난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에게 재난(재앙, 사고, 사건)인 것이다.

13) 존 C. 마터, 장상미 옮김, 『재난 불평등』, 동녘, 2016, 43면. 재난의 복구에 있어서도 부유한 나라에서는 재난이 낳고 오래된 그리고 비능률적 자산을 파괴하고 이후 새롭고 생산적인 자산을 재설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 이면에 있다. 복구 비용이 없거나 새로운 설비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재난 이후 삶의 복구를 위한 경제적 시간적 탐색 비용이 없는 경우 주민들의 삶은 그 이전으로 회귀할 뿐이다

들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통제를 강화하고 감시와 처벌이 일상화된 사회에 만연한 생존에 대한 불안은 바이러스의 원인으로 짐작되는 동양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파생되고 있다. 우생학적 과시즘과 인종주의적 절멸의 기획으로 세계를 끔찍한 비인간의 시대로 만들었던 지난 전쟁의 시대와 다르지 않게, 현재의 재난은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차별과 편견을 재등장시키고 확장하고 책임을 덧씌움으로써 해당 사회의 책임을 덮어버리고 있다.

지배 권력의 혼란을 여실히 드러내는 이러한 ‘엘리트 패닉’은 인민들의 생존의 불안을 경유하여 차별과 혐오를 동력으로 수많은 경계선들을 생산한다. 자유와 경제 성장이라는 화장(化粧) 아래 감추어진 주체와 타자의 경계선들이 재난의 파국에서 다시 뚜렷해지고 선명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남성-국가로 표상되는 권력이 보여주는 ‘엘리트 패닉’은 무능력함의 적나라한 노출이며 근대권력의 불안한 민낯이다. 재난 불평등의 개념은 패닉에 빠진 엘리트 권력에 인공호흡을 하면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재난은 모든 사회적 시스템과 관계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사건이다. 엘리트들로 가득찬 남성 지배권력의 무능력과 달리 시민 공동체들이 사건에 더 충실한 주체들이었다는 점을 레베카 솔닛은 지속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문학은 재난이 왜 발생했는지는 말할 수 없고 어떻게 재난이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어도, 어떻게 사람들이 파괴되어 가는지는 말할 수 있다. 문학은 인간들의 관계가 파괴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정동의 파동을 예민하게 포착하고 언어화하는 세계의 지문이기 때문이다. 문학이 표현하는 그 지점에 재난 불평등과 엘리트 패닉의 짝패 관계를 넘어선 정동 정치의 가능성이 있다. 재난 서사를 재난 불평등이라는 익숙한 관념 너머 정동의 파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재난이 파괴하는 물리적 규모가 아니라 재난이 인류에게 남기는 마음의 파동, 즉 정동의 파동이 재난의 규모를 말해준다.

## 4. 파국의 아브젝트와 자기혐오

### 1) 질병과 구토

재난 서사를 현실의 알레고리로서 분석하는 것만으로 문학의 의미를 모두 포착할 수는 없다. 재난 불평등이라는 익숙한 관념이 말해주지 않는 정동의 파동들이 문학의 서사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재난이 주체에게 남기는 정동의 파동 중 혐오의 정서에 주목하고자 한다.

재난이 불러오는 파국의 이미지는 무너지는 건물, 쓰레기, 배설물, 고름, 부패한 사체, 썩은 음식, 악취 등 ‘아브젝트(The abject)’로 표현된다. 이러한 것들은 죽음의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면서 혐오의 정서를 야기한다. 김애란과 손흥규의 소설에서도 아브젝트는 곳곳에 배치되어 삶과 죽음의 경계를 의문에 붙이고 있다. 다음의 인용문은 이 작품에서 드러난 아브젝트의 이미지들을 모아본 것이다.

어떻게 하든 높은 습도 속에서 기승을 부리는 악취가 문제였다. 할 수 없이 소변은 배란다에 싸고, 대변은 통에 받은 빗물을 이용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빗물의 경우 많은 양을 한꺼번에 옮겨올 수 없어, 옥상에 자주 올라야 했다. 변기 속, 구멍을 타고 회오리쳐 사라지는 오물을 보고 있을 때면, 새삼 물에 잠긴 도시라는 게 얼마나 더럽고 역겨운 곳인지 그려졌다. 인간이 지상에 이룩한 것과 지해에 배설한 것이 함께 엉기는 곳, 짐승의 사체와 사람 송장은 물론 잠들어 있던 망자들의 뉘마저 흔들어 뒤섞어버리는 곳. 그런 곳이라면 결코 빠지지도, 들어가고 싶지도 않았다. (『물속 골리앗』, 96면)

냉동고 속 떡이나 생선은 썩은 지 오래였다. 쌀독에는 벌레가 꼬였다. 집 안에서 점점 나쁜 냄새가 났다. 한동안 나는 그게 음식 냄새인 줄만 알았다. (『물속 골리앗』, 99면)

어머니가 이따금씩 하는 유일한 말은 ‘내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느냐는 거였다. 나는 렙지 않다고, 집 안에 곰팡이가 퍼서 그런 거라고 대꾸했다. (『물속 콜리앗』, 99면)

소년은 반포 IC에서 남쪽으로 방향을 잡을 있었다. 낮에는 무너진 방음벽이 지붕을 이룬 그늘에서 잠을 잤고 밤이 되면 뒤엉킨 차들과 중앙 분리대였던 콘크리트 덩어리 사이를 조심스레 빠져나갔다. 차들은 대부분 폭격으로 부서지고 불타버린 터라 뼈대가 드러나 앙상했다. 간혹 멀쩡한 차들이 있었으나 대개 그 안에서 이미 시체거나 혹은 시체나 다름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었다. (『서울』, 13면)

서울은 비에 젖어갔다. 폐허의 어느 구석에는 이 빗물을 받아먹으며 자라는 생명이 있을 거였다. 소년은 화분에 심긴 병든 식물 같았다. ... 도시도 그렇게 폐허가 된 것이다. (『서울』, 36면)

부패한 육체에서 나오는 악취, 썩은 살, 살을 뚫고 나온 뼈, 구더기가 점령한 온갖 구멍 등의 이미지들은 모두 죽음과 연동된다.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침, 변, 구토물 등이 모두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것이 살아있는 존재인 자신의 몸에서 이탈했기 때문이다. 몸 안에서 그것들은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기능적 존재들이겠으나, 몸 밖으로 이탈한 그것들은 부패와 악취와 일그러진 형상을 동반한 죽음의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따라서 몸 밖, 다시 말해 주체의 바깥은 모두 혐오의 대상이 된다. 타자는 이 주체의 바깥에서 살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혐오의 생산체이다.

무너지고 불에 타버린 건물들, 뒤엉킨 자동차와 구조물들, 방치된 쓰레기, 깨진 유리창 등과 같이 제 기능을 상실한 물질들 또한 부패와 닮아있다. 인간의 육체가 죽음과 가까워지면서 살이 썩거나 악취를 풍기며 일그러진 형상을 보이는 것처럼, 세계의 육체라고 할 수 있는 건축물과 구조

물들의 파괴는 세계가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미에 다름 아니다. 생존을 방해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파괴의 이미지들은 모두 혐오의 대상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홀로 남은 『물속 콜리앗』의 소년은 물 위에서의 삶이 더 죽음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을지라도 폐허로 가득 찬 강남아파트를 떠나야만 했다. 강남아파트에 남은 많은 것들이 부패의 악취를 풍기고 있었으니, 냉장고의 떡과 생선, 모자의 소변과 대변, 문어포와 축축하게 습기를 먹어가는 건물, 그리고 어머니의 시체까지 말이다.

그러나 이내 혐오의 범주는 타자에서 주체로 확장된다. 존재의 육체는 모두 죽음으로 향해간다. 우리는 모두 질병과 노화와 추함에 노출되어 있고, 그곳으로 향해가는 존재다. 거기에 ‘나의 몸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이 말은 인간 누구나 죽어간다는 존재론적 한계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의 몸 자체가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 가깝다. 그 몸이 자신의 것이라도 말이다. 인간 존재가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상적 이미지들(젊음, 아름다움, 활력, 건강한 이성 등)은 비루한 현실의 이미지들(늙음, 추함, 느낌, 지성의 후퇴 등)과 언제나 모순적이다. 후자의 이미지들이 집합된 ‘살덩어리’는 이상적 주체를 위협한다. 이상적 주체와 현실의 살덩어리 사이의 간극은 점점 커지고, 바로 그곳에서 자기혐오의 싹이 자란다. 모든 죽어가는 것은 생존 본능을 지닌 존재에게 혐오의 대상이 된다. 자기혐오의 정동이 움직이는 방식이 이와 같다. “나와 타자의 경계는 액체처럼 유동적이고 불안하며 불안정하다.”<sup>14)</sup>

이런 점에서 볼 때 소설 속 인물들의 육체는 모두 자기혐오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서울』에서 노인은 암에 걸려 기력을 잃어가고 있고, 소년은 부상을 연이어 당하고, 동생은 비-인간의 육체이며, 여자는 임신 중이며 소녀는 어리다.<sup>15)</sup> 재난의 상황에서 임신은 치명적이다. 생존에 필

14) 김종갑, 『혐오, 감정의 정치학』, 은행나무, 2017, 10면.

15) 소년은 고개를 돌려 노인인 여자와 개를 차례차례 보았다. 불뿔없이 아위고 기진맥진한 몸뚱어리들이었다. 나지막한 숨소리만 아니면 시체와 다름이 없었다. (『서울』, 231면)

요한 영양을 나누어야 하고, 각종 위협에 대처하기 힘든 육체의 상태가 되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어떤 존재가 태어날지 알 수 없음에도 그 존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숙명에 놓이기 때문이다. 어린 소녀는 아직 자기 스스로를 지킬 힘조차 부족하다. 더구나 이 인물들이 지속적으로 질병에 노출되는 상태에서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장면이 반복 서술되고 있다. 질병은 이들의 육체를 조금씩 죽음과 가까워지게 한다. 전쟁과도 같은 이 소설의 재난 상황은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의 긴장을 유지해야 하지만, 질병에 노출된 육체는 그러한 이상적 주체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인물들은 모두 자기혐오의 형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더불어 주목할 것은 반복되는 구토의 장면들이다.<sup>16)</sup> 『서울』에서 인물들은 서로 음식을 나누고 섭취하지만(먹을 입을 나눈다는 의미에서 이들은 새로운 가족공동체에 가깝다), 소화되고 흡수되는 것보다 구토하는 양이 더 많아 보인다. 사실 이 소설에서는 먹는 행위 자체가 많이 등장하지 않는다. 통조림에 담긴 음식물들은 가까스로 부패를 피하고 있지만, 주체의 몸 외부의 물질이라는 점에서 거부되면서 타자화되고 있다. 존엄성과 정체성의 상실로 인해 혼란스러운 인물들에게 씹지 않는 통조림은 너무 이질적이다. 간혹 몸으로 들어오는 음식물은 ‘먹음’보다 ‘섭취’에 가깝다. 삶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이며,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만 싸우기 위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다. 모두들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

인물들의 반복되는 구토의 행위는 인간성이 종말을 고한 세계의 끝에 서조차 살려고 하는 자기 육체에 대한 거부감의 표현이다. 생존이라는 본능이 추동하는 육체의 요구는 ‘인간성의 종말’이라는 정신적 파멸과 화해

16) 샤르트르의 『구토』는 어떤 ‘물체가 자신에게 다가와 ‘만져지는’ 순간, 그러니까 타자에게 주체가 ‘만져지면서’ 존재가 구성되는 순간의 역겨움에서 유발되었다. 이때 물체는 이데아적 의미에서 개념적이고 절대적이며 본질적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본질에 가까워질수록 존재는 실존으로부터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즉 이데아라는 거짓으로 실존을 설명하려는 세계의 문법에 대한 거부감이 바로 구토인 바, 곧 구토는 어떤 주체가 세계와 불화하는 무의식적 징후인 셈이다. 김영삼, 『구토, 그리고 글쓰기』, 『문학들』, 2019년 겨울호.

할 수 없는 역겨운 행위인 셈이다. 어떻게 세계가 종말을 고했는데 생존을 위해 먹을 수가 있지? 옆에 사람의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따뜻한 음식을 넘길 수가 있지? 이러한 내면의 질문은 재난이라는 사건 이후 남겨진 주체들의 윤리를 심판대에 올리면서 지속적으로 존재들을 죽음과 자기혐오로 내몰고 있다.

## 2) 자기징벌로서의 자기혐오

김애란의 『물속 골리앗』에서 자기혐오는 조금은 다른 경로를 통해 작동하고 있다.

근대적 존재로서 인간은 합리적 이성과 자유로운 실존에 대한 지향을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조건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인간은 살과 뼈와 피로 이루어진 몸이라는 실체가 필요하다. 이 몸은 병에 걸리고 사멸을 향해 가는 물질이다. 안타깝게도 정신은 이 물질의 바탕 위에서만 가능하다. 몸이 죽으면 생각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인간은 이성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라는 사고를 가진 누군가에게 몸의 유한성과 물질성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야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논리로 세계는 주체들에게 경제적 인간이 되기를 요구한다. 즉 인간은 경제적 존재이다. 생존의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은 자기 존재에 열등감을 느낀다. 자신의 무능력과 무기력, 지속적 패배와 승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자기혐오의 정동을 생산하기에 이른다. 그런 자신이 생물학적 생존을 위해 무언가를 섭취하는 행위는 동물적 본능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자기혐오를 파생한다.

『물속 골리앗』에서 당뇨를 앓고 있는 어머니는 생존을 위해 “너무 많이 먹어서도, 적게 먹어서도”(98면) 안 된다. 소년은 어머니의 방에 적당한 양의 음식들(땅콩, 고구마, 김 등)을 넣어드렸고, “어머니는 늘 소리없이 빈 접시만 내놓았”(98면)다. 소년은 “혼자 식탐을 부리기가 민망했”지만, “아주 열심히, 소리없이” 먹는다. 어느 경우에는 “생쌀을 한 움큼씩” 씹어



먹기도 하며, “얕은 자리에서 쉬어터진 김치를 한 접시씩”(99면) 비우기도 하며, 설탕을 퍼먹기도 한다. 그리고 어찌면 어머니도 그러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사이 냉동고의 떡과 생선은 썩어가고 있었고, 쌀독에는 벌레가 가득했다. “집 안에서 점점 나쁜 냄새”가 나고 있었지만, 소년은 한동안 그것이 “음식 냄새인 줄만 알았다.”(99면) 이때금 “상중(喪中)”이라는 사실을 상기하지만, 육체의 본능이 지배하는 동안 진정한 애도는 계속 유예되고 있다.

그 사이 어머니는 조금씩 이 자기혐오의 뒷에 의문을 던진다. 처음 어머니가 묻는다. “내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느냐”(99면)고 말이다. 이 물음에는 자기혐오가 내포되어 있다. 씻지 못한 몸에서 풍기는 악취와 정돈되지 않은 모습은 죽음의 이미지와 가깝다. 그리고 죽음의 대상들은 부패와 악취라는 감각적 이미지로 처음 다가온다. 때문에 어머니가 자기에게서 느끼는 냄새와 무기력은 자기혐오가 폭발하기 직전의 파동이다. 그리고 문득 외친다. “아버지가 죽었잖니!”라고 말이다. 이 말은 물음이 아니라 깨달음에 가깝다. 『서울』의 인물들에게 나타나는 구토의 행위가 의미하는 바와 다르지 않다. 경제적 실패와 남편의 죽음 그리고 세계의 파멸이라는 죽음의 이미지들 한 가운데에서 ‘먹는 행위’를 지속하는 자기의 육체에 대한 혐오가 소년에게 던진 이 외침을 가득 채우고 있다. 그래서 이윽고 어머니는 칼을 든다. 그리고 찌른다. 생존을 위해 모아둔 물봉지를 마치 자신의 육체를 찌르듯 말이다. 육체에 대한 강한 혐오는 생존 욕망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고 음식에 대한 수치로 확장된다. 애도의 기간에도 이어지는 이 생존 행위는 당연히 공공연하게 이루지기 힘들기 때문에 소년과 어머니는 각각 다른 공간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다. 수치스러운 행위를 같이 하는 것은 공범이 되는 것이니까.

어머니는 양손을 번쩍 치켜 올렸다. 그리고는 아랫배 근처를 향해 힘껏 내리꽂았다. … 어머니가 해친 것은 자기 몸이 아니었다. 물이 담긴

비닐봉지였다. 찢어진 비닐사이로 쿵쿵쿵쿵 물이 쏟아져 나왔다. 어머니는 누군가를 무참히 살해하듯 그것을 찢르고 또 찢렸다. 그런 뒤 나머지 봉지들도 정신없이 가격하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봉지들이 일제히 물을 토해냈다. 물은 거실로, 부엌으로 스멀스멀 기어갔다. 그것은 곧 온 집 안에 퍼질 터였다. 어둠 속 물빛은 검고 끈적였다. 나는 뭘 어찌할지 몰라 뒤로 주춤 물러섰다. 어머니는 여전히 방 안의 수포를 터뜨리는 데 혈안이 돼 있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알 수 없었다.

…… 얼마 후, 어머니는 힘이 풀렸는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고는 입을 벌려 통곡하기 시작했다. 참으로 길고 긴 울음이었다. 나는 어머니를 뒤에서 계속 안고 있었다. 어머니는 몸속에 든 물을 전부 빼내려는 듯 몸부림쳤다. 방 안의 봉지들은 탄력을 잃고 점점 쪼그라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가 울음을 그쳤을 때, 정체 모를 고요가 찾아왔다. … 문득, 어머니가 고른 숨을 뱉는 게 느껴졌다. 갓 잠든 아이의 호흡처럼 피로하고 달콤한 날숨이었다. (『물속 골리앗』, 103-104면)

어머니의 행위는 몇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단수를 대비한 물봉지들은 이전에도 ‘종기’ 또는 ‘수포’라는 언어로 표현되었다. 종기와 수포는 육체의 부패와 병듦을 의미하는 바, 살해하듯 가해지는 공격적 행위는 여기서 세계를 종말로 이끈 부패한 것들에 대한 원망의 표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둘째, 봉지에 담긴 물들이 터져 나오듯 어머니의 눈물 또한 터져 나왔다. 즉 뒤늦은 물-눈물은 애도의 성격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봉지에 가해지는 공격적 행위는 자기 육체에 가하는 징벌적 성격을 지닌다. 마치 자신의 육체를 찢르는 듯 묘사된 어머니의 공격적 행위는 자기 육체에 혐오 표현이다. 생존을 위해 모아 둔 물봉지들은 아버지의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방에서 어머니는 음식을 먹고 인슐린 주사를 맞으며 생존했다 때문에 자기 육체 대신 물봉지를 찢르는 행위는 자신의 생존 본능에 대한 거부감이자 수치심의 표현이다. 생존을 위한 축적은 남편의 죽음을 부른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을 답습하는 것이었다. 어

머니의 뒤늦은 자각은 이러한 자기에 대한 혐오로부터 생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에야 어머니는 “울음”을 토해낼 수 있었고 “날숨”을 쉬게 된다. 우울의 상태에서 벗어나 유예된 애도가 종결된 것이다.<sup>17)</sup> 자기혐오는 자기정벌을 경유하여 겨우 해소될 수 있었다. 그 결과 어머니는 죽음을 마주할 수 있었다.

## 5. 타자혐오와 새로운 공동체

재난이 혐오를 생산한다면, 일상화된 재난(경제난, 전염병 등)은 혐오를 정당화한다. 혐오의 대상을 생산하고 그 대상을 정화하는 의식은 그 대상을 소수로 전락시킴으로써 주류 질서를 정당화하는 정치 논리로 작동된다. “권력이 사회악으로서 혐오의 대상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혐오의 정치는 권력 내부의 폭력을 외부의 대상으로 투사하는 권력의 기제다.”<sup>18)</sup> 손홍규의 소설에서는 이러한 권력의 실체가 등장하지 않는다. 간혹 추락하는 헬기의 모습으로 또는 비밀스런 곳에 있을 것으로 유추되는 상상의 군대가 서술될 뿐이다. 대신 인간과 비-인간의 생존 전쟁만이 묘사된다. 혐오를 생산한 권력은 뒤로 모습을 감추고, 서로를 혐오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두 종족들 간의 싸움으로 비화되는 형국이다. 유적 유사성을 지닌 존재들 간의 차별과 전쟁은 이러한 덧을 망각한 채 혐오의 정치에 포획되었을 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비극이다.

혐오는 생명을 위협하는 이물질을 몸 밖으로, 생존의 경계 밖으로 뱉어내는 기제다. 자신과 다른 타자를 사회의 울타리 밖으로 ‘뱉어내고’ 추방

17) 지그문트 프로이트, 윤희기 옮김, 『슬픔과 우울증』,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들』, 열린책들, 2007.

18) 김종갑, 앞의 책, 76면.

함으로써 공포와 불안의 감정을 해소하려 한다. 그렇다면 사실 본래부터 혐오스러운 것은 없었다는 말이 된다. 다수자가 소수자를, 가진 자가 가난한 자를, 강자가 약자를 비하하고 추방함으로써 자신들의 사회적 정체성을 공고하게 하는 방법론이라는 측면에서 혐오는 정치적이다. 정치적 도구가 되는 혐오의 대상은 그러므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혐오의 대상으로 바뀔 따름이다.<sup>19)</sup>

적대적 감정으로써 혐오는 그 대상을 객관적으로 실존하는 강력한 위협적 존재로 바꾸어 버린다. 혐오해도 마땅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혐오의 전염성을 강력하게 만드는 밑그림이다. 강렬한 증오의 대상은 괴물같은 존재여야만 한다. 실제로 그들이 연약하며 생존의 공포를 느낀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한 개체적 특징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증오의 대상이 되는 종족이나 집단은 개체성이 아니라 집단성으로 인식되면서 언제라도 엄청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의 실존적 증거물로 규정되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차별과 혐오에 덧씌워질 수도 있는 비난들에 대해 정당방위라고 주장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다음의 인용문은 독일 작센의 클라우스니츠에서 일어난 난민 거부 운동에 대한 카롤린 엠케의 비판적 일침이다.

그날 버스에 탄 난민들은 한편으로 개개인으로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보편적인 ‘우리’의 일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각자 특유한 개인사와 경험, 특징을 지닌 인간 존재임을 부정당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타자로, ‘우리가 아닌 자들’로 규정됨으로써 보이는 존재가 되었다. 섬뜩하고 혐오스럽고 위험한 집단이라고 낙인찍을 수 있는 특징들이 그들에게 투사된 것이다. 일레인 스캐리는 ‘기괴함과 비가시성은 타자의 두 아종’이라고 쓴 바 있다. ‘기괴함은 지나치게 가시적이어서 주의를 기울이는 시선조차 돌리게 만들며, 비가시성은 주의를 기울일 가능성조차

19) 김종갑, 앞의 책, 17면.

차단해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게 한다. 20)

클라우스니츠의 일부 사람들은 난민들을 기피하고 비가시적인 존재로 만들면서 차별의 경계선을 만들어버렸다. 존경과 인정은 타인을 인식하는 전제다. 반대로 차별과 혐오는 타인을 오해하는 전제로 작동한다. 그래서 차별 주체로서 타자는 구체적 얼굴이 생략되고, 똑같이 혐오스럽고 위험하고 역겨움을 자아내는 속성으로 규정된다. 난민이건 전염병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새로운 종족이건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감정의 파동이 생성되는 것일까? 그들이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편견과 지각 패턴의 유래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이유는 이러한 정서들이 무(無)에서 생겨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차별, 혐오, 증오, 분노에는 언제나 그것이 발생하고 표명되는 맥락이 존재한다. 이러한 종류의 강렬하고 오래된 감정들은 오랫동안 세대를 넘어 전해져 오는 관습과 신념의 결과물이다. “집단적인 증오와 멸시 성향이 생겨나려면 사회적으로 증오와 멸시를 당하는 이들이 오히려 사회에 피해나 위협이나 위협을 가한다고 주장하는 이데올로기가 있어야 한다.”<sup>21)</sup>

손홍규의 소설에서 이 오래된 이데올로기는 감추어져 있다. 다만 ‘서울’이라는 표제가 징후적으로 그 유래를 짐작하게 할 뿐이다. 거대한 욕망의 집산지이자 주체와 타자들의 이름없는 얼굴들이 수시로 부딪히면서 배타적인 경제적 우월성을 형성했던 공간으로서의 서울 부의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오로지 각자의 생존만이 유일한 목표가 되어버린 공간으로서의 서울, 그래서 가난이라는 결과가 불행의 원인으로 기능했던 공간, 가난이 최악이 되어버려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생을 마치는 것이 더 큰 불행으로 가는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되게 하는 공간, 가난하

20) 카롤린 엠케, 정지인 옮김, 『혐오사회: 증오는 어떻게 전염되고 확산되는가』, 다산북스, 2017, 62면.

21) 김종갑, 앞의 책, 76면.

지 않기 위해 스스로의 가난을 혐오해야만 했던 끔찍한 자기혐오가 생존의 방법론이 되어버린 공간, 이 서울이라는 공간이 지니고 있는 경제적 우생학의 이데올로기가 바로 혐오와 증오의 오래된 미래의 얼굴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이데올로기화 되어버린 차별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지워버린다. 거기에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집단에 대한 인종주의적 차별 또는 우생학적 차별의 논리가 그렇듯이 거기에는 오직 전체를 대표하는 표상만이 작동할 뿐이다. 소설에서 동생은 헬멧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지만, 오히려 그 감춤의 행위가 다름을 드러나게 하는 표시가 된다. 헬멧으로 가린 얼굴, 지워져 버린 얼굴, 드러나지 않는 얼굴은 그래서 위협의 표상으로 기능한다.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동생’ 또는 ‘낮의 사람들은 아직 ‘인간’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비상상황의 도래를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바이러스와 같다. 그들의 세계에는 정상적인 것이 없으며 정상으로 주장되는 예외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들에 대한 판단에는 당연히 구체적인 얼굴이 없으며 집단화된 종족적 특징만이 존재한다.

이러한 협소한 인지 방식은 무엇보다 상상력을 훼손한다. 이방인들을 개개인으로 다루지 않고, 미개한 야만이거나 가난을 증폭시킬 바이러스이거나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쟁자로만 묘사될 때 그 이방인들의 얼굴을 상상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상상력을 펼칠 사고의 공간이 축소되면 감정이 이입될 수 있는 공간도 축소된다. 그럼으로써 개인은 집단과, 그리고 집단은 그 속성들과 언제나 하나로 결합하게 된다.

이렇게 집단화된 차별의 정서는 타자에 대한 증오 또는 분노를 구체적인 얼굴을 따질 필요가 없는 혐오의 정서로 바뀌어 버린다. 그래서 혐오는 생리적 반응이 되어버린다. 즉각적이며 원초적이고 동물적 본능에 가깝다. 거기에는 ‘나의 자산과 생명’에 대한 본능적 생존이 작용한다. 반면 분노는 사회적 반응이다. 옳고 그름을 따진 후에 나오는 감정 반응이다. 때문에 분노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며, 혐오와 달리 말이 통하는 감정일 수 있

다. “분노에서 그 말을 제거하면 혐오가 된다. 혐오에는 ‘왜’나 ‘이유’가 없다. 혐오의 감정이 지배적이면 지배적일수록 언어가 파괴되고 소통이 거부된다.”<sup>22)</sup>

헬멧은 동생이 새로운 종족이라는 사실을 가리는 위장이지만 감춤으로써 오히려 드러나는 스티그마로 작동한다. 새로 태어난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불행이며 악의 근원이다. “괴물로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주변 사람들에 의해 죽었다. 아이의 부모는 “스스로 환한 대낮의 거리로 걸어 들어”(188면) 갔다. 아이 살해는 자기 살해로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소설은 의도적으로 동생에 대해 직접적 설명을 피한다. 동생이 ‘낮의 사람들과 유사한 종족이라는 사실을 서사의 곳곳에 숨겨놓고 있지만 왜 동생이 그런 존재가 되었으며 어떻게 그런 존재가 그렇지 않은 존재들과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지 않는다. 또한 동생을 ‘포획’하거나 ‘저주’하거나 칼을 들이대는 모든 장면에서도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재난의 마땅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은 것처럼 ‘헬멧’으로 위장할 수밖에 없었던 동생의 사정에 대한 설명도 없다. 이 의도적 제의를 통해 소설은 새로운 종족에 대한 분노의 정서가 말과 설명이 필요없는 혐오의 정서로 이동하게 한다.

그러나 이는 다른 측면에서 혐오의 주체가 자기혐오를 인식하게 하는 역설적 기능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혐오는 우리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닮은 존재일 때 가장 강력하게 작동한다. 손흥규의 소설에서 ‘소년’과 ‘동생’이 헬멧을 제외하고 다르게 묘사되지 않은 점, 또는 작은 공동체를 구성한 소년의 집단과 의사가 있는 집단이 다르지 않게 묘사된 점 등은 재난

22) 김종갑, 앞의 책, 10면. 세월호는 사적 혐오의 감정과 공적 분노의 감정이 중첩된 재난 사건이었다. 당시 권력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제 자리에만 있었다. 생중계되는 화면에 보이지 않았지만, 어떤 누구라도 뒤집힌 배의 밑바닥을 채운 어둠과 에어 포켓에 갇혀 있을 생명들이 느낄 공포를 상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며칠 동안 지속된 그 생생한 수장(水葬)의 순간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권력의 무능력은 ‘말이 필요 없는’ ‘말로 설명이 되지 않는’ 또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말과 설명을 하지 못한 권력은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과 설명이 필요없는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엘리트 패닉’은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불러온 혐오의 정서가 사실은 유적으로 유사한 존재들에게 가해지는 어긋난 자기혐오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헬멧을 쓴 동생의 존재는 분노를 해소하려는 우리 세계(서울)의 정서 표출방식의 불합리함을 인식하게 하는 좋은 전략이다.

손홍규의 전략은 다른 곳에서 더 빛을 발한다. 『서울』의 소년은 부모의 무책임과 무능력을 경험했고 그들로 인해 폐허가 된 세계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재난 상황에서 마주친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낮의 사람들에게 끌려간 동생과 소녀를 구출하기 위해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소년의 귀환은 이 소설이 새로운 가족 구하기의 서사로 변화하면서 재난 서사의 윤리적 위치를 점유한다.

“형, 난 사람이야? 넌 내 동생이야. 난 사람이야? 넌 내 동생이야.” (『서울』, 98면)

“아주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머니가 어떤 아기를 낳으시든 그 아기는 아주머니를 보고 웃어줄 거예요.” ... / “아무도 그 아기는 건드릴 수 없어요.” (『서울』, 202면)

“아주머니가 이 세계를 저주하면서 홀로 죽어가게 내버려두지는 않을 거예요.” / “저주하지 않았어.” /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 “난 네 어머니가 아니야.” / “제 어머니가 맞아요.” / “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 “늦었어요. 이미 그런 사람이니까요.” (『서울』, 221면)

“넌 저 개의 부모나 마찬가지로. 네 동생에게도 그렇고.” (『서울』, 223면)

“나는, 나는 너를 알아보고 싶어. 나는 …… 네 할아버지니까.” (『서울』, 264면)



혐오는 타자를 동물화하면서 자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 열등한 존재로 만든다. 반대로 동정과 연민, 사랑과 연대의 정동은 타자를 재인간화한다. 손흥규의 소설을 이끌어가고 있는 소년과 동생, 여자와 소녀, 그리고 할아버지로 이루어진 작은 공동체는 동생을 보호하고 소녀를 구출하는 비-영웅들의 영웅 서사로 변화시킨다. 소설은 재난이 몰고온 파국, 혐오, 차별의 반대편에 사랑과 연대의 정동을 위치시키고 있다. 물론 그것이 죽음으로 끝날지라도 살아남은 ‘소녀’와 ‘동생’의 마음에 신체의 파멸보다 사랑의 정동이 더 오래도록 남을 것이고, 이들이 포스트-서울을 지배하게 될 새로운 종족에게 과거의 종족이 남기는 유일하게 의미있는 유산일 테니까 말이다.

자본주의는 스스로를 구성하는 대상을 물질에서 비물질로 자본에서 비자본으로 끊임없이 변화시키면서 생존한다.<sup>23)</sup> 타자에 대한 혐오의 뿌리가 여기에 있다. 이때 재난은 정동의 대립을 표면화하는 계기로 작동한다. 그러나 『서울』의 폐허에서 죽어 간 소년에게서 우리는 애도의 정동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소년에게 헬멧을 쓴 동생은 언제까지나 동생이었다. 여자의 뱃속에 든 아기도 가족이었고, 여자는 소년의 어머니였고, 할아버지는 소년의 할아버지가 되었다. 이 새로운 공동체 사이에서 느껴지는 정동의 파동은 혐오의 정치 정반대편에서 증폭되고 있다. 문학을 통한 재난의 서사화는 이 애도를 지속적으로 현재화하고 정동의 증폭을 통해 정치 행위로 실현되고 권력의 변화를 야기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 재난의 글쓰기는 애도의 지속을 통해 사건을 현재화하고 슬픔을 현재진행형으로 만드는 기억하기의 작업이다. 애도는 범-초월적인 성격을 지닌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국가는 애도를 통제하고 관리하면서 혐오와 차별을 확산하지만, 애도의 정동은 법이나 국가의 규율을 넘어서도 스며들고 확

23)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정남영·윤영광 옮김, 『공동체-자본과 국가 너머의 세상』, 사월의 책, 2014. 비물질과 비자본에 대한 자본주의의 공격은 우리 사회의 ‘공통적인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이다.

장한다. “전환하는 삶의 변화에 동의하는 것”<sup>24)</sup>으로서의 수행성은 이런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 7. 나오며 ; 경험을 상실한 문학의 과제

목시록적 서사는 목시록이 약속하는 구원의 신비를 벗겨낼 때 비로소 현재의 시간이 갖는 의미와 파국을 제대로 조명할 수 있게 된다. 즉 목시록 없는 목시록 또는 전망이나 진리나 구원이나 계시 따위는 없는 재난이 현대의 시간에 필요한 목시록일 것이다.

재난 서사는 재난 자체에 내러티브를 부여하는 형식이 아니라 재난이 불러오는 모든 관계의 혼란과 파괴에 대한 양식이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인간과 자연 등 인간이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들이 폭력적 방식으로 재정립되는 순간이 바로 재난이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의 모든 관계 설정과 체제를 한 번에 뒤흔드는 사건이면서 불가역적 힘으로 다가온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재난이 이야기하는 정동의 측면에서 고찰했다.

재난은 일상적이지만 재난의 결과는 평등하지 않다. 산업사회가 재화의 분배를 둘러싼 계급적 불평등 시대였다면, 재난사회에서는 위험요소가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에 해당하는 ‘사회적 위험 지위(social risk positions)’<sup>25)</sup>의 차이는 공포나 불안과 같은 정동의 분배 또한 결정한다는 점에서 가혹하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재난은 사회의 불평등 구조가 드러나는 계기가 된다. ‘재난 불평등’의 개념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재난은 ‘예외상태’의 가시적 출현이다. 생명의 죽음과 물질의 파괴는 파국적 상상력을 가속화시키면서 모든 일상성의 안전을 심문하는 계기로 작동한다. 사회와 국가의 일

---

24) 주디스 버틀러, 양효실 옮김, 『불확실한 삶』, 경성대학교출판부, 2008, 47면.

25) 허라금, 앞의 책, 82-83면.

상적 기능은 일시정지 되고, 생명의 유지를 위한 관리와 통제의 기능이 강화된다. 이때 국가권력은 관리와 통제의 안과 바깥을 구분하면서, 예외적 존재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안전을 강화한다. 그리고 이때 권력은 무능력한 패닉 상태에 빠진다. 그럼에도 남성화된 엘리트 권력은 재난 불평등을 수정해야 한다는 과제를 수단 삼아 자신들의 권력을 재생산한다. 의도와 상관없이 ‘재난 불평등’의 개념은 ‘엘리트 패닉에 빠진 지배 권력’과 짝패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제안으로서 본 연구는 재난 서사에 담긴 정동의 측면에 주목했다. 재난은 불안과 공포 그리고 혐오와 차별의 정동을 생산하는 사건이다. 분배의 아래편에 놓인 주체들은 자존감의 상실, 제도에 대한 신뢰의 상실, 심각한 공포감과 항상적 우울증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잠재된 사회적 갈등의 요소들과 결합하여 불안과 분노가 확대 재생산될 때 또 다른 사회적 재난을 파생시킨다. 김애란과 손흥규의 소설에서 우리는 자기혐오에 의한 자기 징벌과 애도의 종결을 확인할 수 있었고, 타자혐오에 깃든 구체성의 상실과 그 반대에서 싹트는 연대의 정동을 볼 수 있었다.

남은 문제는 이제 재난을 다루는 문학과 문학 연구가 주목해야 할 방향이다.

전략의 경험이 진지 전쟁에 의해, 경제의 경험이 인플레이션에 의해, 그리고 육체의 경험은 물량전에 의해, 윤리적 경험이 권력자에 의해 이처럼 철저하게 허위였음이 입증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아마 마차를 타고 학교에 다니던 그 세대는 맨 하늘 아래, 구름 말고는 아무것도 변치 않고 남겨진 것이 하나도 없는 풍경 속에서 있고, 그 가운데에 파괴적인 흐름과 폭발의 역장(力場) 속에 왜소하고 부서지기 쉬운 인간의 몸뚱이가 있다.<sup>26)</sup>

26) 발터 벤야민, 최성만 옮김, 『이야기꾼』, 『발터 벤야민 선집 9 - 서사, 기억, 비평의 자리』, 길,

재난 시대의 문학은 경험을 박탈당했다. 문학의 전통적 사유의 시공간이었던 과거는 이제 재난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현재성의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다만 지나간 시대에 대한 환원론적 향수에 불과할 것이다. 구원 없는 묵시록의 재난 서사에서 아름다운 과거가 서술되지 않는 것은 아름다움으로 포장되는 과거의 시간성에는 현재의 파국을 설명해 줄 어떤 경험도 전무하기 때문이다. 경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실현가능한 것으로서 제공되지 않는다. 동시대인들은 그들의 전기(傳記)를 잃어버렸고, 그들의 경험을 몰수당했다. 하물며 이야기꾼들의 어려운 사정이야 익히 짐작 가능하겠다. 묵시록의 등장은 이야기꾼들에게 내려진 시간성 상실에 대한 최종적인 진단이다. 그러니 지난 세기 근대화되는 세계의 스펙터클한 이미지들, 거대화되는 물질문명, 파시즘적 권력 앞에서 이야기꾼으로서의 절망을 우려했던 벤야민의 진단은 여전히 유효하겠다.

그렇다면 이제 '문학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가능하다. 본론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세계의 경제적 불평등은 재난의 불평등을 낳는다. 때로 문학은 예리한 시선으로 경계 바깥에 놓인 존재들의 삶을 언어화하면서 '파국의 계급성'을 보여준다. 김애란과 손홍규의 소년들이 겪은 가난과 불평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문학의 역할이 사회학적 분석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데에만 있을 리 만무하다. 사회학과 정치학의 영역이 아닌 곳에서 작동하는 재난 서사의 역할을 찾는 것이 문학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일 터, 일상화된 재난 상황이 개개인의 삶에 남기는 정동의 파동과 마음의 흔적들을 추적하고 언어화하는 데 그 역할이 있다. 때로 이것은 주체의 윤리의 이름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김애란의 소설에서 어머니가 보여주는 자기 징벌은 자신의 수동적이고 무기력했던 삶의 태도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었다. 손홍규의 소설에서 '새로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소년의 의지는 파국의 절망을 공유하고

슬픔과 애도의 공동체를 형성했던 정동에 대한 충실성이었다. 혐오의 정동을 넘어 연대와 사랑의 정동을 폐허가 된 세계 위에 남기는 행위였다. 비록 소년은 죽었다고 할지라도 연대와 사랑의 정동은 파동이 되어 새로운 세계에서 연쇄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정동하고 정동되는’(스피노자) 움직임의 형성할 것이다.

목시록은 유대-기독교적 전통의 한 주요한 형상이다. 목시록은 다른 모든 잔존을 자신의 탐식하는 광명 속으로 흡수해버리는 잔존일 것이다. 목시록은 강한 ‘성스러운’ 잔존-종말의 시간이자 ‘최후의 심판’일 것이고, 다른 모든 잔존은 죽음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 강한 잔존은 다른 모든 잔존을 죽음에 처하기 위해 예고된다. 이런 ‘악한’ 잔존들은 우리가 어두운 숲을 지나갈 때 여기저기서 경험하는 것이다. 그것들은 그만큼의 미광들이고, 이를 통해 희망과 기억은 서로에게 자신의 신호를 전달한다.<sup>27)</sup>

목시록의 잔존에 대해 언급한 조르주 디디에르 에르만스의 저 말의 말미에 등장하는 “악한 잔존”들이 바로 구원 없는 재난 서사가 주목하고 있는 빛이다. 파괴의 웅장한 빛이 아니라, 신의 계시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부신 빛이 아니라, 살아남은 존재들의 절망과 슬픔과 연대와 사랑의 관계에서 새어나오는 “미광”들이 문학을 안내하는 신호일 것이다. 이것이 ‘정동’ 또는 ‘정동 정치’ 또는 ‘문학의 정치’ 등 다양한 이름으로 호명된다 할지라도,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는 따뜻한 ‘반딧불’이 반짝이고 있다는 것만은 변하지 않는 사실일 것이다. 2010년대 이후 일상화된 재난의 시대를 목도하면서 한국 문학이 남긴 반딧불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 작품들에 대한 응시와 분석이 이후의 연구과제로 여전히 남아있다.

27) 조르주 디디에르 에르만스, 김홍기 옮김, 『반딧불의 잔존』, 길, 2012, 78-79면.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김애란, 『물속 골리앗』, 『비행운』, 문학과지성사, 2012.  
손흥규, 『서울』, 창작과비평, 2014.

2. 단행본 및 논문

- 강유정, 『재난서사의 마스터플롯』, 『세계의 문학』 151, 2014년 봄호.  
김성일, 『고위험사회가 초래한 한국형 재난의 발생과 기원』, 『문화과학』 통권 72호, 2012.  
김영삼, 『구토, 그리고 글쓰기』, 『문학들』, 2019년 겨울호.  
김은하, 『후기 근대의 공포와 재앙의 상상력- 편혜영의 『재와 빨강』』, 『Comparative Korean Studies』 Vol.21 No.1.  
김종갑, 『혐오, 감정의 정치학』, 은행나무, 2017.  
김지혜, 『재난 서사에 담긴 종교적 상징과 파국의 의미 - 김애란, 윤고은, 정용준의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70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7.  
김형중, 『대한민국 목서록』, 『현대문학』, 2010.7.  
김홍중, 『사회학적 파상력』, 문학동네, 2016.  
문강형준, 『왜 ‘재난인간-재난에 대한 이론적 검토』, 『문화과학』 통권 72호, 2012.  
문강형준, 『재난 시대의 정동-애도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여성문학연구』 35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복도훈, 『세계의 끝: 최근 한국소설에 나타난 재난의 상상력과 이데올로기적 증상』, 『인문학연구』 42권,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1.  
소영현, 『민주화의 역설과 한국소설의 종말론적 상상력 재고』, 『한국문예창작』, 제12권 1호, 한국문예창작회, 2013.  
신진숙, 『재난의 상상력과 정동의 미적 정치』, 『인문논총』 제75권 제2호, 2018.  
오혜진, 『출구 없는 재난의 편재, 공포와 불안의 서사-정유경, 편혜영, 윤고은 소설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제48집, 우리문학회, 2015.  
윤정화, 『김중혁 소설에 나타난 재난 서사의 변주』, 『대중서사연구』 제24권 제1호, 대중서사학회, 2018.  
이광호, 『시체들의 괴담, 하드코어 윈터랜드-편혜영 소설과 모더니티의 엽기전』, 『아오이가든』, 문학과지성사, 2005.  
전성욱, 『세계의 끝에 관한 인식과 그 서사화의 유형학 - 2000년대 이후 한국소설』

- 의 재난·종말 서사』, 『동남어문논집』 38집, 동남어문학회, 2014.
- 정여울, 『구원 없는 세계에서 살아남기 - 2000년대 한국문학에 나타난 '재난'과 '과국'의 상상력』, 『문학과 사회』 2010년 겨울호.
- 조윤정, 『백화점 붕괴의 기억과 재난 자본주의 - 삼품 참사의 서사화와 쓰가노동의 윤리』, 『한국문학연구』 61, 2019.
- 한순미, 『세계를 바라보는 다초점 렌즈로서의 재난(인)문학』, 『동서비교문학저널』 제 50호, 2019.
- 허라금, 『위험 시대 "재난"과 정치적 책임』, 『철학연구』 108, 철학연구회, 2015.
- 홍덕선, 『과국의 상상력: 포스트모더니즘 문학과 재난문학』, 『인문과학』 제57집, 성균관대 인문학연구원, 2015.
- 레베카 솔닛, 정해영 옮김, 『이 폐허를 응시하라』, 그린비, 2012.
- 발터 벤야민, 최성만 옮김, 『이야기꾼』, 『발터 벤야민 선집 9 - 서사, 기억, 비평의 자리』, 길, 2012.
-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정남영·윤영광 옮김, 『공통체-자본과 국가 너머의 세상』, 사월의책, 2014.
- 조르주 디다위베르만, 김흥기 옮김, 『반딧불의 잔존』, 길, 2012.
- 존 C. 마터, 장상미 옮김, 『재난 불평등』, 동녘, 2016.
- 주디스 버틀러, 양효실 옮김, 『불확실한 삶』, 경성대학교출판부, 2008.
- 지그문트 바우만, 조은평·강지은 옮김,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 동녘, 2010.
- 카롤린 엠케, 정지인 옮김, 『혐오사회-증오는 어떻게 전염되고 확산되는가』, 다산북스, 2017.
- 지그문트 프로이트, 윤희기 옮김,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들』, 열린책들, 2007.

<Abstract>

## Disaster narrative without salvation and hateful emotion

—Focusing on Kim Ae-ran's 『Goliath in the water』  
and Son Hong-gyu's 『Seoul』

Kim, Young-Sam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narrative of the apocalypse, in which salvation is omitted, paying attention to the emotion of hate produced by disaster. Currently, humanity is experiencing a daily disaster. But salvation does not exist. The same is true of Kim Ae-ran's “Goliath in the Water” and Son's “Seoul”. The whole world is submerged, or Seoul itself as a modern space is in ruins. But there is no God of salvation. The parent generation is irresponsible until the moment of death. The boy of “Goliath in the water” is left alone on the tower crane where his father died, and the boy of “Seoul” is returning to Seoul again to save his brother, but the world is rarely reviewed without reflection. This salvation-free disaster narrative and future apocalypse are a plot of disaster that judges all systems of society and the mode of existence of the community.

In particular, this article focuses on the emotion of disgust produced by disaster. The image of the disaster is represented by an ‘abject’. The images of decayed bodies, stinks, and collapsed buildings are reminiscent of death, producing disgust. In particular, vomiting, which frequently appears, is an expression of self-hatred for the demands of the body that survival instincts desire. Also, self-destruction of characters is an



expression of reflective self-hatred for the past. Disaster also sparks a strong aversion to batter. In particular, hatred and discrimination against a younger brother in helmets in “Seoul” was a mechanism to amplify hatred of others. Hate is just a customary reappearance of this ideology. Hate blocks the imagination of the way new communities exist by erasing the specific faces of the beings they are targeting. The literature that narratives of disasters is exploring its position, focusing on the fluctuations of Jeongdong beyond surrogate supplements of sociology that diagnose inequality in disasters.

Key words: Disaster narrative, apocalypse, hate, discrimination, the end of the world, disaster inequality, [Goliath in the water], [Seoul]

투 고 일 : 2020년 5월 30일

심 사 일 : 2020년 6월 1일-6월 11일

게재확정일 : 2020년 6월 12일

수정마감일 : 2020년 6월 26일